

# 제주도지명에 나타나는 옛 어휘\*

- 한반도 중남부 계통의 몇 어휘를 중심으로 -

오 창 명\*\*

## 차 례

1. 서 론
2. 본 론
  - 21 오름·오름/岳·兀音·兀老音
  - 22 매·미·모/山
  - 23 미/水
  - 24 돌·돌·도/梁·道
  - 25 \*물개/沙
  - 26 -래·래/谷
3. 결 론

## 1. 서 론

제주도지명에 대한 올바른 연구가 확립된다면 제주말[濟州語]의 원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할 것이다. 제주도지명 연구를 통한 제주말의 원류를 살핀 연구로 눈에 띄는 것은 현평효(1971, 1990), 김공철(1977) 등이다. 현평효(1971, 1990)에서는 지명과 부족명을 통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주말은 원시 고구려계 언어, 곧 부여계 언어에 속한다고 추론하였다. 김공철(1977)에서는 제주도지명과 인명, 어휘 등을 본토 언어와 비교하여 제주말은 북방계통의 고구려어와

\* 이 글은 사단법인 제주학회 제14차 전국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했던 것을  
깎고 보탠 것이다.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가라어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되었을 것으로 파악하였다.) 김홍식(1978, 1985, 1986)에서도 제주도지명 연구를 통하여 제주말은 남방계의 언어보다 북방계인 고구려어와 밀접하고 가라어 영향도 받았을 것으로 보았다.

이 글은 제주도지명에 나타나는 차자 표기와 그에 대응되는 제주말의 어휘에 한반도 북부 계통의 어휘 못지 않게 남부 계통의 어휘에 대응되는 것이 많음을 보이려고 한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종전의 연구에서 북부 계통, 특히 고구려어적인 요소가 많다는 주장과는 달리 중남부 계통의 가라어, 신라어, 백제어 요소도 많다는 것을 보이려고 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작게는 제주말의 원류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여전히 논란이 계속 되는 우리말의 계통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한 작업이 된다.

## 2. 본 론

### 2.1 오름·오름/岳·兀音·兀老音

제주도지명에 '오름'이 쓰이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고, 이에 대응하는 표기로 岳이 일찍부터 쓰였다.

- 
- 1) 이기문(1967, 1968)에서는 부여·한 공통어에서 원시한어(신라어)와 원시부여어(고구려어와 원시일본어)가 분리된 것으로 보았고, 김공철(1977)에서는 원시조선어에서 원시한어(마한어와 사로어)와 원시고구려어(진한, 탐라어, 가라어, 고구려어, 왜어)가 분리되었다고 보았다. 김방한(1983)에서는 원시한반도어를 설정하고 그 밑에 백제어와 신라어의 남부 언어와 고구려어의 북부언어를 설정하여 고대 한반도의 남부와 북부에는 계통을 달리하는 언어가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고 나아가 가야의 언어도 다른 남부의 언어와 동일한 언어였을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강길운(1993)에서는 이들과는 전혀 다른 '한국어의 계통도'를 그리고 있다.

두의오름/頭毛岳·頭無岳  
검은오름/巨文岳·巨門岳·黑岳  
가메오름/釜岳  
남짓은오름/木密岳

이들 표기에 보이는 岳은 옛 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오름<sup>2)</sup>'으로 읽을 수 있다. 오늘날 민간의 음성형에서도 '오름'을 확인할 수 있다. 오늘날의 지도에 여전히 岳 또는 '오름'으로 남아있는 것이 있지만 일부는 19세기에 峯·峰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오름 이름으로 岳이 쓰인 것은 제주도의 오름만이 아니었다. 『삼국사기』(권32)에 보이는 다른 지방의 산 이름에도 岳이 쓰였다. 한 예로 전라도 광주에 있는 '무등산'의 옛 이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武珍岳[武珍州] 『삼국사기』(권32)  
無等山…一云武珍岳 一云瑞石山 『신증동국여지승람』(권35, 평산현, 산천)  
無等山…新羅稱武珍岳 高麗稱瑞石山 『대동지지』(권12, 전라도, 광주)

오늘날 '무등산'은 한자로 無等山으로 표기하고 '무등산'으로 읽고 있다. 그러나 고대 삼국시대에는 武珍岳으로 표기하였고 고려시대에는 瑞石山으로 표기하였다. 이것이 조선시대부터 無等山으로 표기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들 세 표기는 모두 하나의 음성형을 차차로 표기한 것이다. 곧 武와 瑞, 無 등이 대응되고 珍과 石, 等 등이 대응되고, 岳과 山이 대응된다. 武와 無는 동일한 음성형으로 '무'의 음가자 표기이고, 珍과 等은 '돌'의 훈가자 표기, 石은 '돌'의 훈독자 표기이다.<sup>3)</sup>

2) 以岳 爲吾老音 『남사록』(권1). 以岳 爲兀音 『탐라지』(제주목).

3) 전라북도 진안군 마령(馬靈)의 백제시대 이름은 馬突과 馬珍, 馬等良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岳이라는 표기이다. 이 岳의 표기는 제주도오름 표기에 나타나는 岳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 곧 ‘오름’의 훈독자 표기로 보인다. 그런데 육지의 방언에서는 이런 음성형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sup>4)</sup> 제주도에서만 쓰이는 특이한 형태로 인식되어 왔다. 그런데 제주도의 ‘오름’에 대응되는 표기를 신라 향가의 하나인 「擘星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성가」의 다섯 번째 구절 “三花矣 岳音 見賜烏尸 聞古/三花의 오름 보시울 듣고”에 보이는 岳音이 그것이다. 이것을 양주동(1942:584)에서는 ‘오름’, 김완진(1980:128)에서는 ‘오름’으로 해독하였다.

한편 “文登縣 本高句麗 文峴縣 景德王改名 今因之”(『산국사기』 권 35, 지리지)라는 기록에서 登과 峴이 대응됨을 알 수 있다.<sup>5)</sup> 登은 ‘오르다·오르다’는 훈을 가졌고, 峴은 ‘재·고개’라는 훈을 가졌다. 이때 文登을 ‘큰오름’으로 해독(신태현, 1958:65)한다면 登도 ‘오름’의 뜻으로 쓰인 것이다.

이상의 예로 볼 때 ‘오름’은 신라시대의 자료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 다른 지역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제주도지역에

(『고려사』 권 57, 지11)으로 표기되었다. 이때의 突과 珍·等良은 모두 동일한 음성형을 표기한 것으로 ‘돌’ 또는 ‘돌’ 정도로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신라 관명 “波珍浪 或云海干”(『삼국사기』 권38)에서 波珍과 海가 대응되는데, 이는 중세국어 ‘바물[海]의 신라어로 “바돌이 있었음을 알게 한다. 여기에서도 珍이 ‘돌’의 훈차자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도수희(1994:179)에서도 武等を ‘무돌’로 읽었다.

4) ‘봉우리의 뜻으로 경북 영주에서는 ‘산만데이’, 경남 충무에서는 ‘산몽대이, 먼당, 먼댕이’ 등이 쓰이고, ‘산기슭’의 뜻으로 경남 거창에서는 ‘산만당’, ‘재’의 뜻으로 경남 하동과 전남 여수와 구례 등에서는 ‘몬당’ 등이 쓰인다.(최학근, 1978)

5) 文登은 강원도 회양 동쪽에 있었다. 『고려사』(권58)에서 “文登縣 本高句麗 文峴縣[一云斤乙波兮]”라 한 것으로 보아 ‘文峴’은 ‘글바희[斤乙波兮] 정도의 음성형을 차차로 표기한 것이다. 文峴의 峴은 峴의 오기로 보인다. 登은 ‘바희’의 훈으로 쓰였다고 보기가 어렵다.

서만 확인되므로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 외부에서 유래한 말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으로 보인다.

『삼국사기』 부여계 지명(고구려 지명과 백제 지명)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山이나 高의 뜻으로 한자음 連[ta]이 쓰이고, 岳·嶽의 뜻으로 岬·押[arp]이 쓰이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sup>6)</sup> 그러므로 제주도지명에 쓰인 ‘오름’은 부여계 어휘가 아니라 신라어 계통이 어휘라 할 수 있다.

## 2.2 메·미·모/山

표준어 山에 대응하는 제주도방언으로 ‘미’ 또는 ‘메’, ‘무·모’가 있고 이에 대응하는 표기로 山이 쓰이고 있음도 주지의 사실이다.

道內山/도내미·도노미(제주시 오라동 정실마을과 북제주군 예월읍 봉성리)

水山/물메·물미(북제주군 예월읍 수산리와 남제주군 성산읍 수산리)

西山/서메·서무·서모(북제주군 조천읍 함덕리)

‘미’와 ‘메’는 중세어 ‘뫼’(뫼 爲山<훈민-원. 해례:25>)가 단모음으로 변한 것이다. ‘모’ 또한 ‘뫼’의 단모음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sup>7)</sup> ‘무’는 ‘모’가 변한 것이다.

山은 일찍부터 ‘뫼’의 혼독자로 표기되었다.

郁李 山叱伊賜羅次/郁李 밋이스랏 『鄉藥救急方』(상, 18)<sup>8)</sup>

- 6) 高烽縣 本高句麗 連乙省縣…松岳郡 本高句麗 扶蘇岬…唐嶽縣 本高句麗 加火押…蘭山縣 本高句麗 昔連縣…松山縣 本高句麗 夫斯連縣 『삼국사기』(권35). 이들 예에서 高·山과 連乙·連 그리고 岳·嶽과 岬·押의 대응을 확인할 수 있다.
- 7) ‘뫼·뫼’의 후대음으로 ‘뫼’가 나타나는데 제주도방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는 ‘뫼’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柴胡 俗云山叱水乃立/柴胡 뗏물나리·뗏미나리 『鄕藥救急方』(향약목9)

### 2.3 미/水

표준어 '물'에 대응하는 제주도방언으로 '미'가 쓰임도 주지의 사실이다.

- 高美岳/케미오름 「탐라지」(동경대본)
- 槐水岳/케미오름 「제주군읍지」(「제주지도」)
- 구두미(보목동 동쪽 바닷가에 있는 섬)

위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美는 '미'의 음가자 표기, 水는 '물'의 변음 '미'의 혼독자 표기이다. 한자 水에 대응하는 제주도방언 '미'는 '물>물'의 변음이다. '물'의 변음 '미'는 중세·근대국어인 '미나리>미너리'<sup>10)</sup>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4 돌·돌·도/梁·道

제주도지명에서 '갯담이나 발담에 사람이나 마소가 드나들 수 있도록 만든 곳'이라는 뜻으로 '도'가 일반적으로 쓰인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바가갯도(서귀포시 호근동):朴哥城途『호근록』. 영포(서귀포시 서호동)  
도 막아진 밧디 마쉬 들랴.(‘도’가 막힌 밧에 마소가 들겠는가!)

그런데 이 ‘도’는 제주도지명에서 차자 표기로 梁과 道·途 등이

8) 榔李樹 뗏이스랏나모<역해, 하:42>.

9) 뗏미나리 불취물 음 업게 호고 큼게 싸하라(柴胡去苗 음 업게 하라)  
<분문 25>. 柴胡…뗏미너리…<물명 37>.

10) 芹 미나리 근<훈몽·초, 상:7>. 薪 俗作芹 미너리 苦薪 水英 水芹 赤芹  
<물명, 3:22>.

쓰였다. 종전에 '도'는 표준어에는 쓰이지 않고 다른 지역의 방언에서도 확인할 수 없다고 하여 독특한 제주도방언형으로 인식하여 왔다.

門 思味梁, 門 楮木梁, 門 非乙於梁, 門 龍南梁, 門 黑德梁 / 문 세  
밋도, 문 탁남도, 문 빌엇도, 문 갓남도, 문 검은데깃도(「탐라지도」와  
「제주삼읍도총지도」)

道內山·道內山岳 / 도노미·도노미오름, 「탐라순력도」, 道內山里/  
도노미마을(동도노미, 서도노미) (「탐라지도」와 「제주삼읍도총지도」)

그러나 '도'의 표기로 쓰인 梁과 道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서도 확인할 수 있다.

旃檀梁[旃檀梁 城門名. 加羅語 謂門爲梁云] 『三國史記』(권44)  
沙湫漸湫等[羅人方言 讀湫音謂道. 故今或作沙梁 梁亦音道] 『三國遺  
事』(권1, 辰韓)  
沙梁部[梁讀云道. 或作湫亦音道]…漸梁[一作湫] 『三國遺事』(권1, 新  
羅始祖 赫居世王)

梁의 중세 훈은 '돌·돌·돌'로 나타나므로, 梁은 '돌·돌·돌' 또는  
'도' 정도로 읽히는 훈독자 표기라고 할 수 있다.

梁은 드리라<월석 21:77>. 梁 돌 랑 水橋也 又水堰也 又石絕水爲  
梁<훈몽-초, 상2>  
가마오디 西人덕 히 비취엿는 더 놀개 물의노라 고기 잡는 들해  
드국하얏도다(鷓鴣西日照 曬翅滿漁梁)<두해-초, 75>

梁이 이른 시기에 '돌'로 읽히고, 근대국어시기에 이르러 제주도방  
언에 남아있는 '도'와 같이 말음이 탈락된 '도'로 읽히는 것은 다음의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承休因獻策曰 待賊半過窄梁…『고려사』(권106, 이승휴). 窄梁 손들…窄, 側伯切. 狹也. 窄梁, 在今江華府南三里<용가 6:59> // 孫梁項, 高麗時稱窄梁…○卽自江出海之口 石梁橫亘水中如門闕. 中央稍凹 潮之進退水勢甚急 舟舡至此 俟潮滿而過水底 石角嶙峋 波濤洄瀾 舡路極險 『대동지도』(권2, 경기도, 강화부)11)

鳴梁 一云鬚斗項, 海南三枝院至碧波亭… 水中石嶼森立橫亘如梁 而梁之上下截如階級 海水至此, 自東越西如垂瀑之甚急 又見海南 『대동지』(권14, 전라도, 진도) // 鳴梁項 『대동여지도』12)

見乃梁 『신증동국여지승람』(권32, 경상도, 거제현)과 『대동여지도』

위에서 ‘손들’을 窄梁으로 표기하고, 梁을 ‘들 량’이라 하였으므로 중세국어시기에는 ‘들’ 또는 ‘똥’이 일반적인 형태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鳴梁項을 ‘鬚斗項/울두목’이라고도 한다는 것으로 보아 근대국어시기에는 ‘들’의 발음 ‘ㅎ’은 물론 ‘ㄹ’도 탈락되고 또 ‘도’가 ‘두’로 변하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때의 鳴은 ‘울’의 훈독자 표기, 鬚는 ‘울’의 음가자 표기, 梁은 ‘들>도’의 훈독자 표기, 斗는 ‘도’의 유사음 ‘두’의 음가자 표기, 項은 ‘목’의 훈독자 표기이다. 제주도방언에 남아 있는 ‘도’도 발음 ‘ㄹ’이 탈락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소죽리에 ‘노리목>노루목’이라는 지명이 있는데, 이 ‘노리목’을 『대동여지도』에는 ‘路梁’으로 표기하였다. 路는 ‘노리’의 불완전한 음가자 표기이고, 梁은 ‘길목’ 또는 ‘어귀’의 뜻으로 볼수 있는

11) ‘손들’은 경기도 강화군 불은면 덕성리와 김포군 대곶면 송마리 사이의 아주 좁은 물목을 이르는데, ‘손들목’이라고도 한다.

12) 鳴梁은 조선 선조 30년(1597) 9월 16일에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1백 33척의 예선을 대파시킨 바다가 鳴梁(전라남도 진도와 해남군 화원반도 사이의 좁은 해협)이다. 鳴梁은 속칭으로 ‘울두목·울들목·노들목’이라고 한다.



훈독자 표기이다. 경남 통영군 용남면 장평리와 거제시 사동면 오량리 사이에 있는 해협을 민간에서는 '개내도'라고 하는데 한자로는 見乃梁으로 표기하였다. 見은 '견'의 음가자 표기이므로, 이것이 민간에서 '개'로 변했음을 알 수 있다. 乃是 '내'의 음가자 표기, 梁은 '들>도'의 음가자 표기이다. 이외에도 '-梁'으로 표기된 지명이 많다. 이런 예들을 볼 때 우리 나라 전역에 분포하고 있는 梁은 '들·돌·들·도' 정도의 음성형을 표기한 것으로, 대개 좁은 길목이나 해협, 어귀 등의 뜻으로 쓰이고 있는 어휘임을 알 수 있다.

한편 門의 뜻으로 고대일본어에서도 to[門·戶]가 쓰이고, 만주어에서는 '두카'[duka. 門]가 실현되었다. 양주동(1943:565)에서는 梁은 '도'로 읽히고 일본어 戶의 和訓 to와 동일어라고 했다. 이승재(1996:172)에서는 梁이 '\*tor(k)>\*tar(k)' 또는 '\*tor(k)>\*to(rk)'의 과정으로 음상이 변한 것으로 보았다. 이기문(1967)에서는 門의 뜻으로 쓰인 '梁/도'가 신라어에 보이지 않고 고구려어 내지 고대일본어와는 일치한다고 하여, 기원전의 弁韓 지역에 부여계 언어가 존재했다는 가설을 세우기도 하였다.<sup>13)</sup> 이에 대해서는 김수경(1989:128)에서 비판되고 있다. 김수경은 고구려어에서 門을 'to'라거나 또는 이와 유사하게 말했다는 증거가 아직 없고, 고구려어와 신라어 사이에 여러 말이 공통된다고 하면서 '梁/도'를 비롯한 세 마디의 공통된 어휘를 가지고 고구려어와 신라어 사이보다 고구려어와 가라어 사이가 더 깊다고 할 수 없다고 비판하였다.<sup>14)</sup> 이에 앞서 김방한(1983:142)에서는 똑같은 자료를 두고 이기문(1967)과 전혀 다른 견해를 밝혔다. 곧 가야 지방의 언어가 다른 남부의 언어와 성격을 달리하는 언어였다고 볼

13) 이기문(1968), "韓國語 形成史", 『한국문화사대계』 5(言語·文學史),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이기문(1981), 『韓國語形成史』(삼성문화문고 160), 삼성미술문화재단.

14) 김수경(1989), 『세나라시기의 언어력사에 관한 남조선학계의 견해에 대한 비판적 고찰』, 평양출판사.

수 없다고 하였다. 한편 강길운(1993:19)에서는 위 『삼국사기』(권44)의 門의 음을 '\*pari'로 재구하고 인도 중동부의 드라비다계어라고 하였고, 김용태(1994:185~188)에서는 '들/梁'이 海·河·水를 뜻하는 길약어(Gilyak-:지금 사할린 북쪽 일부와 아무르강 하류에서 쓰이는 소수 인종의 언어) 'tol'이라고 하여 한국어가 길약어와 동계일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이들은 재론의 여지가 많다.

'梁·道/들·도'가 현재 확인되는 자료에서 한반도 중남부 지역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이 말의 계통을 굳이 외래적인 요소라 할 수 없다고 본다. 김방한(1983:117)에서도 현재 확인되는 고구려지명 자료를 검토한 뒤에, 고대 한반도의 남부와 북부에는 계통을 달리하는 언어가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제주도방언에서 '도'가 아주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데, 이것이 부여계 영향이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 『삼국유사』에 보이는 沙梁部和 漸梁部, 그리고 及梁部 등은 경주의 행정구역인 육부(六部)에 속하는 것인데, 이 중심적인 행정구역 이름에 쓰인 '梁/도'가 고구려어 계통이라면 신라어도 고구려어 계통이라는 말로 확대 해석해야 할 소지가 있다. 이는 오히려 남부 지역의 고유어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 2.5 \*물개/沙

'모래'의 제주도방언은 주로 '모살'로 나타난다. 그러나 남제주군 대정읍 하모리의 옛 지명과 북제주군 한림읍 금성리의 옛 지명은 모두 '모실개, 모슬개'라고 하고 한자 표기로는 毛瑟浦와 募瑟浦로 나타난다. 이로 볼 때 '모살'은 제주도방언에서 어느 시기에 '모실', '모슬' 등의 단계를 밟았음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모살'은 제주 지역뿐만 아니라 전라남도의 영암·강진·보성·고흥 등의 방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제주도지명에 남아있는 음성형과 지명 표기를 통

해서 일반에서는 확인되지 않지만 경상남도의 거창·창녕과 경상북도의 봉화·문경 등의 방언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물개’를 확인할 수 있다.

제주시 이호2동의 지명에서 ‘가물개, 셋가물개’라는 지명을 확인할 수 있다. 오늘날의 5,000분의 1 지도에는 ‘석가물개’로 잘못 표기되어 있다. 한글학회(1986:542)에는 ‘가문모살’(이호1동) 위쪽에 ‘가물개’라는 큰 마을<sup>15)</sup>이 있다고 했고, 제주시(1996:415)에는 ‘셋가물개, 셋가물개’가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다.

옛 지도인 『탐라순력도』(『한라장축』)에는 오늘날 이호1동 ‘현사동(玄沙洞)’ 바닷가를 ‘可沙浦’, 『탐라지도』에는 ‘可沙村, 可沙浦’, 『제주삼읍도총지도』에는 ‘旧可沙村, 可沙村, 可沙浦’로 표기되어 있다.

可는 ‘가’의 음가자 표기이고, 沙는 ‘모래’의 제주도방언 ‘모살’ 또는 ‘모래’의 소급형인 ‘물개’의 훈독자 표기, 浦는 ‘개’의 훈독자 표기, 村은 ‘마을’의 훈독자 표기이다. ‘모래’의 중세형 ‘물개’의 소급형은 ‘물개’이다. 그러므로 이것과 민간에 남아 있는 옛 음성형을 고려하면 可沙浦는 ‘가물개’의 차자 표기임을 알 수 있다. ‘가물개’는 ‘가물개’ 정도의 음성형에서 동일한 음 ‘개’는 반복을 피하기 위해 하나를 탈락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가물개’는 민간에서 ‘가물개’로 변하여 남아 있으나, 최근에는 바닷가 지역만 ‘감은모살’이라 하고 이를 한자로 바꾸어 玄沙洞이라 하고 있다.

제주시 삼양2동의 바닷가 마을도 ‘가물개’라고 한다. 역시 『제주삼읍도총지도』 등에 ‘可沙浦’, 『여지도』(『제주목』)에 ‘可沙浦村’으로 표기하였다. 可沙浦는 ‘가물개’, 可沙浦村은 ‘가물개마을’의 차자 표기이다. ‘가물개’는 오늘날 ‘가물개’로 변하여 남아 있다. 이 ‘가물개’ 음상을 증시하여 일제시대부터 한자로 마을 이름을 甘水洞이라 표기하고 있다. 이는 음성형 ‘가물개’를 ‘든(단, 甘)+물(水)+개(浦)’로 이해한 데

15) 이 책에 ‘가물개’는 오늘날의 ‘오도롱’을 일컫는다는 설명은 잘못이다.

서 생겨난 잘못된 표기이다. 역시 이 지역도 ‘검은 모래’가 있는 ‘가물개’이다. 원래의 이름을 되찾아 주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본다.

## 2.6 -래·래/谷

제주도지명에 ‘래’ 또는 ‘래’로 끝나는 것이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제주시 노형동 해안마을에 있는 ‘주루래’와 북제주군 조천읍 교래리에 있는 ‘감발래’이다.

‘주루래’는 지금 해안 축산단지로 조성되어 있는 동네를 이른다. 해안마을의 고로(古老)들은 약 500년 전에 마을 남동쪽에 있는 ‘주루래’라는 곳에 처음 사람이 살기 시작하였다고 하고, 해안마을에 새로 형성된 마을을 ‘새가름’이라고 하고 이곳을 ‘묵은가름’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옛 지도에도 표기되어 있어서 오래 전부터 있었던 마을임을 짐작할 수 있다. 『탐라지도』에는 ‘門 周流川梁/문 주류넛도’, 『해동지도』(『제주삼현도』)에는 ‘門 周流出梁/문 주류난도’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주변의 묘 비석에는 ‘酒露來/주로래, 朱乙來/주올래, 珠露川/주로내, 周流川·注流川/주류내, 珠漏川/주루내’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 한글학회(1986:545)에서는 지형이 ‘주루래’(피리)처럼 생겼다는 데서 유래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제주도방언에서 표준어의 ‘피리’를 ‘주래·주네’(한평효, 1985:581)라고 하는데, ‘주루래’의 음성형이 이와 비슷하다는 데서 건강부회한 해석으로 보인다. 우리는 ‘주루래’에서 확인할 수 있는 ‘래’는 다음의 ‘감발래’와 같은 뜻을 가진 동일한 음성형이 아닌가 한다.

‘감발래’는 조천읍 교래리와 선흘리의 경계에 있었던 마을로 지금은 집터만 남아 있다. ‘부소오름’ 남동쪽, ‘가끄래기오름’ 동북쪽 지역이다. 『제주군읍지』(『제주지도』)에 ‘火田洞/화전골’, 일제시대의 지도에 ‘甘發來/감발래’로 표기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 김종철(1995:3권.169)에서는 “‘감발외(감발+외)’의 와음으로, 이 지명은 그것이 한

두땃구석임을 실감나게 나타내고 있어 흥미롭다. ‘감밭’은 먼 길을 걷는 사람들이나 상일하는 사람들이 밭에 감는 밭감개, ‘외’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을 뜻하는 말로 날외(日果里) 같은 마을 이름 아랫부분에 쓰이는 제주방언 특유의 어휘이다.”고 하였다.

우리는 위 두 지역에서 보이는 ‘래’는 경남 함안의 ‘숲구래’(숲이 우거진 마을), 경남 김해의 ‘퇴래’(작은 마을), 경남 진양의 ‘이래’(고개가 두 개 있는 골), 경남 진양의 ‘행기숲거래, 작은이래’ 등에서 보이는 ‘래’와 같은 것이 아닌가 한다. 김영진(1982:66)에서는 이때의 ‘래’는 ‘마을, 谷’의 뜻을 가진 특수한 방언 및 지명으로, 가야어라고 부르기로 한다고 하였다. 그 이유로는 다른 지역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이들의 어원 또한 현재 밝히기 어렵고 중세국어와 비교할 만한 것이 현재 발견되지 않는 것 등을 들고 있다. 제주도지명에서 확인되는 ‘주루래’와 ‘감밭래’도 지금은 폐허로 변했지만 오래 전에 마을이었다고 하는 것, 모두 산간 골짜기에 있고 가까이에 큰 냇가 지나고 있다는 것 등을 고려하면 谷의 뜻을 가진 가야어 계통의 ‘래’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 3. 결 론

지금까지 제주도지명에 나타나는 한반도 남부 계통으로 보이는 몇 어휘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종전까지의 제주도지명 연구에서 확실히 밝힐 수 없었던 어휘들에 관해서 몽고어에서 왔다, 만주어에서 왔다, 심지어는 인도말에서 왔다는 등 외래유입설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그러한 주장에는 대부분 수긍할 만한 논증이 없었다. 음성형이 비슷하면 그것에 제주도지명을 바로 대응시키는 논리를 폈기 때문이다. 아직도 한경면 頭毛里를 섬의 머리로 보고, 구좌읍 종달리에 있는 地尾峰을 ‘땅 끝(꼬리)에 있는 오름’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단순한 한자 해석식의 지명 연구라든가 풍수지리설에 의한 지명 해석, 그리고 현재 해득할 수 없는 어휘라고 해서 한반도 이외의 외부에서 유입한 것으로 해석한다든가 하는 한 제주도지명 연구는 제자리걸음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이런 연구들은 하루 빨리 지양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강길운(1990), 「고대사의 비교언어학적 연구」, 새문사.

강길운(1993), 「국어사개설」, 형설출판사.

강길운(1993), 「국어사정설」, 형설출판사.

강영봉(1991), “탐라어연구-고대일본어와의 비교:제2부 탐라어와 고대 일본어”, 『논문집』 32집, 제주대.

김공철(1969), “탐라어와 반도 언어와의 관계”, 『제주도』 40집.

김공철(1977), “방언의 계통”, 『방언학』, 정향출판사.

김공철(1990), “탐라어연구-고대일본어와의 비교:제1부 탐라어와 왜인어”, 『일본학보』 25호.

김공철(1995), 『원시한일공통어의 연구』, 한국문화사.

김방한(1983), 『한국어의 계통』, 민음사.

김수경(1989), 『세나라시기 언어력사에 관한 남조선학계의 견해에 대한 비판적 고찰』, 평양출판사.

김용태(1994), 『고대말연구』, 육일문화사.

김홍식(1978), “제주도지방의 지명에 대하여:특히 지명접미사를 중심으로”, 『논문집』 (인문·사회과학편) 10집, 제주대.

김홍식(1985), “제주도지방의 지명 어휘고(1)”, 『논문집』(인문학편) 20집, 제주대.

김홍식(1986), “제주도지방의 지명어휘고(2)”, 『논문집』(인문학편) 26집, 제주대.

- 도수희(1987), 『백제어연구(I):전기어를 중심으로』, 백제문화개발연구원.
- 도수희(1989), 『백제어연구(II):어원·어휘론을 중심으로』, 백제문화개발연구원.
- 도수희(1994), 『백제어연구(III):왕명·국호 등의 어휘론을 중심으로』, 백제문화개발연구원.
- 신태현(1958), 『삼국사기 지리지의 연구』, 우중사.
- 오창명(1997ㄱ), “지명의 차자표기에 대한 해독:제주지역 오름 이름의 어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탐라문화』 17집,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 오창명(1997ㄴ), “제주도 마을과 산악 이름의 종합적 연구”, 『탐라문화』 18집,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 오창명(1998ㄱ), “제주도지명 표기와 해독의 허실”, 백록어문학회 제5회 학술대회 발표 요지.
- 오창명(1998ㄴ), 『제주도 오름과 마을 이름』, 제주대학교출판부.
- 이기문(1967), “한국어형성사”, 『한국문화사대계』 권5(언어·문학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 이기문(1968), “언어의 친족관계”, 『국문학논집』 2집, 단국대.
- 이기문(1981), 『한국어형성사』(삼성문화문고 160), 삼성미술문화재단.
- 이승재(1996), “계림유사와 차자표기 자료와의 관계”, 『대동문화연구』 제30집,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소.
- 제주시(1996), 『제주시 옛 지명』.
- 최학근(1978), 『한국방언사전』, 현문사.
- 한글학회(1986), 『한국지명총람』(16. 제주편·전남편Ⅳ).
- 현평효(1971), 『탐라 언어의 원류』, 『논문집』 3집, 제주대.
- 현평효(1990), “지명을 통해서 본 탐라언어의 원류”, 『제주문화』 4호, 방송대 제주지역학생회.